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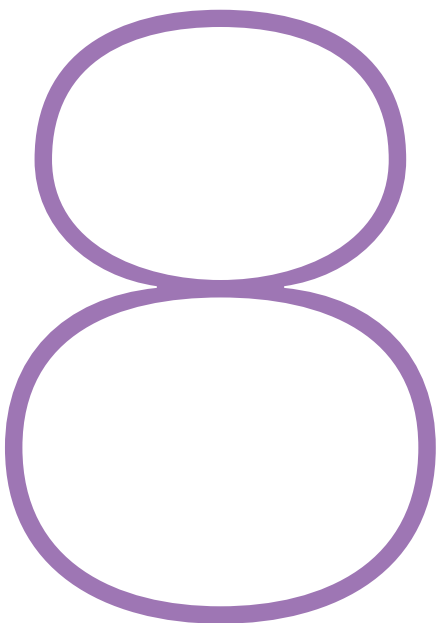
TOBACCO CONTROL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ISSUE REPORT



경고그림, 무(無)광고포장, 그리고 신종담배까지
담뱃갑 건강경고의 끝나지 않은 도전



Infographic

세계의 담뱃갑 건강경고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담뱃갑 포장과 건강경고
경고그림과 무광고포장의 세계적 확산
무연담배, 신종담배 등 쉼련 외 제품의 건강경고
문구로만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담뱃갑 건강경고

Monthly Keyword

담배가격, 금연구역, 담배소송

Vol. 16, August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세계의 담뱃갑 건강경고

Monthly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09 담뱃갑 포장과 건강경고

09 경고그림과 무광고포장의 세계적 확산

10 무연담배, 신종담배 등 쉐련 외 제품의 건강경고

13 문구로만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담뱃갑 건강경고

Monthly Keyword

14 담배가격, 금연구역, 담배소송

기획총괄 오유미
편집·구성 이정은 장영림 차정림 황지은

세계의 담배갑 건강경고

TCIR INFOGRAPHIC No.16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예시〉
 국가
 경고문, 그림 도입 연도
 면적: 앞면 %, 뒷면 %

○ 경고문구 부착 의무 ○ 경고그림 부착 의무 ○ 담배갑 포장 표준화 ★ 담배갑 포장 표준화 법안 검토 중

이 달의 정책

체코 하원의회, 담배소비세 인상 승인

체코 하원 의회에서 EU의 담배소비세법(Council Directive 2010/12/EU) 이행을 위해 담배 한 갑당 소비세를 3~4코루나(한화로 약 145~194원)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10년 통과된 EU의 담배소비세법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총 소비세율(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종량·종가세)은 평균 소비자가격의 최소 60%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EU에서는 평균 소매가와는 별개로 쉐련담배 1,000개비 당 담배소비세가 약 90유로(한화로 약 12만원)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 실외 외식 공간까지 금연구역으로 포함하나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식사(dining)나 서비스(hospitality) 업무가 이루어지는 실외공간과 모든 공공건물의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외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특히 아동이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보건부장관 데이비스 역시 “해당조치는 빅토리아 주민들을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인도, 담배 소비 연령 현행 18세에서 25세 상향 고려

최근 담뱃세를 인상하는 조치에 이어 담배제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인도정부의 규제 정책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인도 연방 보건부 장관 Harsh Vardhan은 지난달 2003년 제정된 ‘쉐련 및 그 외 담배제품법(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Act 2003)’의 개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했다.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담뱃갑 포장에 브랜드 표기를 금지하는 조치와 더불어,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한결 강도 높은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터키에서 물담배 규제 강화 된다

터키에서 물담배(Hookah, 후카)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터키 보건부 메흐메트 뮈에진오울루 장관은 ‘물담배가 일반 쉐련담배만큼이나 해롭고, 특히 물담배를 한 번 피우는 것은 쉐련담배 50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놀이터, 공원, 병원이나 쇼핑몰 등에서의 물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현행 규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터키에서는 이미 몇몇 실내 사업장에서의 물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나 보건시설 인근에 물담배 카페를 개업하는 것, 18세 미만자 대상판매, 물담배 광고 및 관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물담배 포장에 건강 경고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공공의료팀(Public Health England), 표준 포장 도입 시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발표

담뱃갑 표준 포장(Standardised packaging)을 도입하면, ‘흡연율 감소’라는 보건상의 이익 뿐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12년 12월 세계 최초로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을 도입했던 호주에서는 정책 도입 후 담배 판매량이 3.4% 하락했다. 잉글랜드 공공의료팀(Public Health England)은 영국에서 이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시 약 5억 파운드(한화로 약 8,407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담배는 건강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서 저소득층에서 그 피해와 손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담뱃갑 표준 포장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담배 소비를 줄임으로써 건강상의 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담배제품 대신 다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매업자들의 경우에도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의 7~9%에 해당하는 적은 이익을 얻는데 반해, 식품과 음료를 파는 경우 20~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담뱃갑 포장 표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달의 연구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전자담배 이용 간 상관관계
 Perception of e-cigarettes' harm and its correlation with use among
 US adolescents

Stephen M. Amrock et al.(2014)
Nicotine Tob Res(2014)
 doi: 10.1093/ntr/ntu156

본 연구는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전자담배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에는 '2012 전국 청소년 담배사용 실태조사(2012 National Youth Tobacco Survey)'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총 24,658명이었다. 미국 청소년의 절반은 전자담배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중 전자담배 사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2%, 현재 사용자는 4.0%였다. '전자담배를 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34.2%는 전자담배가 일반켄련보다 덜 해롭다고 믿었으며,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1.8%는 전자담배가 비교적 덜 해롭다고 답했다. 여성이거나 17세 이상인 경우에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더 유해하다고 인식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인이거나, 본인이 전자담배 외 다른 담배제품을 사용하거나,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담배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 전자담배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태도 연구

"Pictures don't lie, seeing is believing": Exploring Attitudes to the Introduction of Pictorial Warnings on Cigarette Packs in Ghana

Arti Singh, MPH et al(2014)
Nicotine Tob Res(2014)
 doi: 10.1093/ntr/ntu127

본 연구는 가나의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뱃갑 포장의 경고 문구(text warning)와 경고 그림(pictorial warning)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가나 쿠마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흡연자 50명, 비흡연자 35명으로 이루어진 12개의 포커스 그룹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의 질적 연구가 시행됐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은 문구와 그림이 모두 조합된 건강경고가 글 또는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경고보다 더 효과적으로 건강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인지했다. 토론에서 테스트 한 건강 경고 중, 폐암, 실명, 뇌졸중, 그리고 후두암 및 구강암 메시지가 금연 시도 등의 흡연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문구와 그림을 모두 조합한 건강경고는 흡연량의 감소 및 금연 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흡연행위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트린다.

물담배 흡연과 체중과의 관계 : 시리아의 인구기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Waterpipe Smoking and Body Weight: Population-Based Findings From Syria

*Kenneth D. Ward et al(2014)
Nicotine Tob Res(2014)
doi: 10.1093/ntr/ntu121*

일반적으로 쉐련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체중이 덜나가고, 금연하는 과정에서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쉐련담배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물담배의 흡연이 체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연구진은 시리아 알레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2,536명의 체질량지수(BMI)를 물담배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비정기 흡연자, 매일 흡연자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물담배 비흡연자는 84.1%(2,134명), 과거흡연자는 4.6%(116명), 비정기 흡연자는 9.9%(251명), 매일 흡연자는 1.4%(35명)였다. 연구 결과 물담배 매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6kg 정도 체중이 더 나갔고, 비만이 될 가능성 역시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담배제품 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 중 담배업계의 로비가 미친 영향 Quantifying the influence of tobacco industry on EU governance: automated content analysis of the EU Tobacco Products Directive

*Hélia Costa et al(2014)
Tob Control, published online first 13 August 2014
doi: 10.1136/tobaccocontrol-2014-051822*

담배업계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담배규제 정책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text-mining technique)을 활용해 EU 담배제품규제법 개정과정에 담배업계가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EU 공청회 기간 동안 담배업계, 보건 NGO들, 담배소매업자 등 18개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문서와, EU의 2010년 공청회 보고서(2010 consultation document), 2012년 최종 제안서(2012 final proposal), 2014년 3월 채택된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 자료 등을 통해 정책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소매업자, 노동조합, 출판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담배업계에 더 가까웠으며, EU 집행위원회의 입장 역시 담배업계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의 정책결정과정에 담배업계가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담배 규제기본협약을 고려한 추가적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가로 5.6cm, 세로 8.3cm, 높이 2.3cm. 담뱃갑은 현란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려는 담배업계와 흡연의 폐해를 알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규제당국의 정면대결이 한눈에 드러나는 그야말로 “격전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담뱃갑에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는 건강경고(Health warning)부착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담배회사 고유의 디자인 자체를 금지하는 호주의 무(無)광고 포장 정책의 자국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담뱃갑 전체면적의 30%에 미치는 경고문구 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담뱃갑 포장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들어가기 전에

담뱃갑 포장규제의 중요성과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금연이슈리포트 2013년 8월호 “담뱃갑 진화론”, 무연담배 및 신종담배의 종류에 대해서는 금연이슈리포트 2014년 3월호 “담배춘추전국시대” 참고
 지난 금연이슈리포트 다운로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건강증진자료실에서 가능(www.khealth.or.kr)

Monthly 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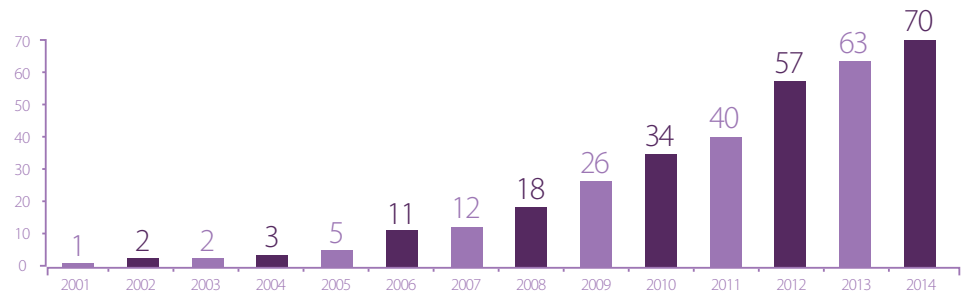
이 달의 이슈

담뱃갑 포장과 건강경고(Tobacco packaging and health warning)

담뱃갑 포장은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도, 대중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담배규제를 촉진하는 입장에서는 담뱃갑 포장에 담배의 위해성을 알릴 수 있는 건강경고를 부착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 전략”인 셈이다. 건강경고는 경고 문구(textual warning), 경고 그림(graphic/pictorial warning)이나 혹은 이 둘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며 브랜드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에 사용되는 색과 글꼴을 일원화하는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 또는 표준 포장(Standardised packaging)의 형식이 되기도 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와 이행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협약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담배제품에 건강경고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건강경고의 크기는 해당제품 표시면의 최소 30%이상, 가능한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문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사진이 포함된 건강경고를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권고한다. 실제로도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움직임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담뱃갑 포장규제를 강화하였다.

세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추세 (2001~2014년)



※ 출처: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Third Edition, Canadian Cancer Society, October 2012

* 2014년 수치는 개발원 조사결과이며, '14년 8월까지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입법한 국가 수입

경고그림과 무광고포장의 세계적 확산

아시아 지역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증가 추세



[올 6월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의 담뱃갑 경고그림(좌)과 세계 최대크기의 경고그림이 부착된 태국의 담뱃갑(우)]

특히 최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고그림 도입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필리핀에서는 올 6월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의 위해성을 담은 건강경고그림이 포장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16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6월부터 담뱃갑 포장의 40%를 차지하는 경고그림을, 스리랑카에서도 내년 1월부터 포장 앞·뒷면의 60%를 차지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태국의 경우, 다국적 거대 담배업체들과의 소송 끝에 올 9월부터 담뱃갑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담뱃갑 건강경고를 의무화한 나라가 되었다.

호주의 무광고포장 정책의 효과와 표준 포장 도입을 앞둔 나라들

한편,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호주의 무광고포장 정책은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매 2-3년마다 이루어지는 ‘전국 약물관리 가구조사(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의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주 내 14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2010년 15.1%에서 2013년 12.8%로 감소했으며, 흡연자들의 흡연량은 2010년 일주일 평균 담배 111개비에서 2013년 96개비로 약 15개비 정도 줄어들었다. 흡연시작 연령도 1995년 평균 14.2세에서 2013년 15.9세로 상승하였다.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영국의 담뱃갑 표준 포장 디자인(안)]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현재 영국과 뉴질랜드, 아일랜드에서도 호주의 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 포장(Standardised packaging)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 추진과 관련하여 영국 Public Health Englan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 포장 도입 시 약 5억 파운드(한화로 약 8,470억 원)의 비용절감과 흡연으로 야기되는 건강불평등 해소 및 가계의 실제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정부내각이 표준 포장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승인한 상태이며, 뉴질랜드에서도 의회 보건 위원회가 담뱃갑 표준포장 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프랑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에서도 담뱃갑 무광고포장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담뱃갑 포장규제의 발전과 진화는 더 이상 일부 국가나 지역의 사례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연담배, 신종담배 등 궤련 외 제품의 건강경고

이처럼 궤련(cigarette)에 대한 포장규제가 세계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끊임없는 진화를 이루는 반면 씹는담배(chewing tobacco), 머금은 담배(snus)와 같은 무연담배(Smokeless tobacco)에 대한 포장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무연담배가 궤련담배만큼 소비되는 지역에서는 담배종류의 구분 없이 동일한 수준의 포장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등 남미지역 대부분이 무연담배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무연담배에도 주요면적의 80%에 달하는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집트, 이란, 쿠웨이트, 모로코,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의 다수 국가에서도 무연담배에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반면,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연담배에 상대적으로 덜 강력한 포장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궤련제품의 포장에는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인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무연 담배에는 경고문구로만 이루어진 건강경고 부착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건강경고의 크기도 담배종류별로 다르다.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담배제품이 성행하면서 궤련 외 담배제품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강력한 포장규제를 단행하는 국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무연담배 제품의 주요포장면적 50%이상에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 하여 궤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포장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 세계 무연담배 건강경고 도입 현황 (2012년 기준)

구분	예	아니오	정보없음	총계
경고문구 법 규정여부	120	65	9	194
경고그림 포함여부	32	88	74	194
폰트, 색상, 크기 법 규정 여부	68	51	75	194
경고 순환여부	55	64	75	194

* 출처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일부국가에서는 담배종류 및 사용방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보다 효과적인 건강경고 형태를 개발하여 담배제품별 건강경고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연담배의 사용이 구강암과 후두암을 유발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들 무연담배나 신종담배가 결코 껌담배보다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담배종류별 경고문구 지정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의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는 무연담배에 대하여 보다 크고 강력한 건강경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연담배에는 머금은 담배 (moist snuff), 씹는 담배, 스누스 등이 포함되며, 2010년 6월부터 이들 제품에는 아래의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담배종류	형태	크기	표기내용
무연담배 (Smokeless tobacco)	문구	주요면적의 30%	① WARNING: This product can cause mouth cancer ② WARNING: This product can cause gum disease and tooth loss. ③ WARNING: This product is not a safe alternative to cigarettes. ④ WARNING: Smokeless tobacco is addictive.

캐나다의 경우, 껌담배의 포장규제와 기타 담배제품의 포장규제가 별도의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껌담배의 포장규제는 Tobacco Products Labelling Regulations에서 다루고 있으며 경고그림을 포함하는 건강경고가 75%를 차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비디스, 시가, 파이프담배 및 기타 무연담배 제품의 건강경고는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경고문구가 주요면적의 50%를 차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담배제품별로 표기되어야 하는 내용을 지정하고 있다.

담배종류	형태	크기	표기내용
비디스 (Bidis)	문구	주요면적의 50%	① USE OF THIS PRODUCT CAN CAUSE CANCER ② TOBACCO SMOKE HURTS CHILDREN ③ TOBACCO SMOKE CAN CAUSE FATAL LUNG DISEASES ④ TOBACCO SMOKE CONTAINS HYDROGEN CYANIDE
씹는담배 및 구강담배 (Chewing tobacco and oral snuff)	문구	주요면적의 50%	① THIS PRODUCT IS HIGHLY ADDICTIVE ② THIS PRODUCT CAUSES MOUTH DISEASES ③ THIS PRODUCT IS NOT A SAFE ALTERNATIVE TO CIGARETTES ④ USE OF THIS PRODUCT CAN CAUSE CANCER
코담배 (Nasal snuff)	문구	주요면적의 50%	① THIS PRODUCT IS NOT A SAFE ALTERNATIVE TO CIGARETTES ② THIS PRODUCT CONTAINS CANCER CAUSING AGENTS ③ THIS PRODUCT MAY BE ADDICTIVE ④ THIS PRODUCT MAY BE HARMFUL

싱가포르 역시 무연담배에 부착되는 건강경고는 문구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연담배는 구강암과 잇몸질환을 유발한다.”와 같이 무연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담배종류	형태	크기	표기내용
무연담배 (Smokeless tobacco)	문구	주요면적의 50%	① SMOKELESS TOBACCO CAUSES MOUTH CANCER ② SMOKELESS TOBACCO KILLS ③ SMOKELESS TOBACCO CAUSES MOUTH AND GUM DISEASE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무연담배에 부착되어야 하는 경고문구와 그림을 지정 : 인도

2011년부터 경고그림을 도입한 인도는 특히 자국 내에서 궤련만큼이나 수요가 많은 비디스 담배와 무연담배에도 궤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포장규제를 단행하였다. 건강경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고그림은 일반담배(smoked tobacco)와 무연담배(smokeless tobacco)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무연담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 제품에 부착되는 문구에는 “Smoking Kills” 대신 “Tobacco Kills”로 표기하고, 그림에서는 구강암의 위험성을 부각한다.






담배종류	형태	크기	표기내용
무연담배 (Smokeless tobacco)	그림 + 문구	앞면의 40%	① WARNING TOBACCO KILLS 
			② WARNING TOBACCO KILLS 
			③ WARNING TOBACCO KILLS 

무광고포장을 모든 담배제품에 일괄적용 : 호주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플레인패키징 정책은 궤련이 아닌 담배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담배 종류별로 부착해야 하는 건강경고의 형태와 내용은 법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는데, 시가(Cigars) 담배의 경우에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고그림까지 포함하는 건강경고를 부착해야 하며, 비디스(Bidis) 및 기타 무연담배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양한 담배종류에 적용된 호주의 플레인패키징 제도]



담배종류	형태	크기	표기내용
시가 (Cigars, other than cigar tube)	그림 + 문구	주요 면적의 75% * 주요 면이 최소 250cm ² 일 경우, 건강 경고 최소 188cm ²	① CIGAR SMOKING CAUSES MOUTH CANCER 
			② CIGAR SMOKING CAUSES LUNG CANCER 
			③ CIGAR SMOKING IS NOT A SAFE ALTERNATIVE 
			④ CIGAR SMOKING CAUSES THROAT CANCER 
			⑤ CIGAR SMOKING DAMAGES YOUR TEETH AND GUMS 
비디스 (Bidis)	문구	가로 50mm, 세로 20mm	① BIDI SMOKING CAUSES MOUTH AND THROAT CANCER
			② BIDI SMOKING CAUSES LUNG CANCER
			③ BIDIS ARE NOT A SAFE ALTERNATIVE
			④ BIDI SMOKING CAUSES EMPHYSEMA
			⑤ BIDI SMOKING KILLS
무연담배 (Smokeless tobacco)	문구	주요면적의 25%	① THIS PRODUCT CONTAINS CANCER CAUSING AGENTS
			② THIS PRODUCT MAY BE HARMFUL TO YOUR HEALTH

Monthly Highlights

이 달의 이슈

문구로만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담뱃갑 건강경고

우리나라가 WHO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담뱃갑에 건강경고를 넣기 시작한 것은 1976년으로, 1986년에는 문구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이후 경고 문구의 크기 및 위치, 기재하는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였고,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를 신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문구내용과 표기 방식이 정해졌다.



국내 담뱃갑 경고문구 표시내용

앞면 (면적의 30% 이상)	뒷면 (면적의 30% 이상)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옆면(한쪽)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CTC를 2005년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담배제품에 경고그림이 포함된 건강 경고를 도입했어야 하나 수차례에 걸친 입법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인 “담뱃갑 면적 30% 크기의 경고문구”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결련 외 담배제품의 종류별 특성과 건강상의 폐해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전자담배와 머금은 담배(예, 스누스) 등의 신종담배의 제품특성을 고려한 경고문을 별도로 정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올해 11월에 새롭게 개발된 경고문구의 부착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9조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0.>

[시행일 : 2014.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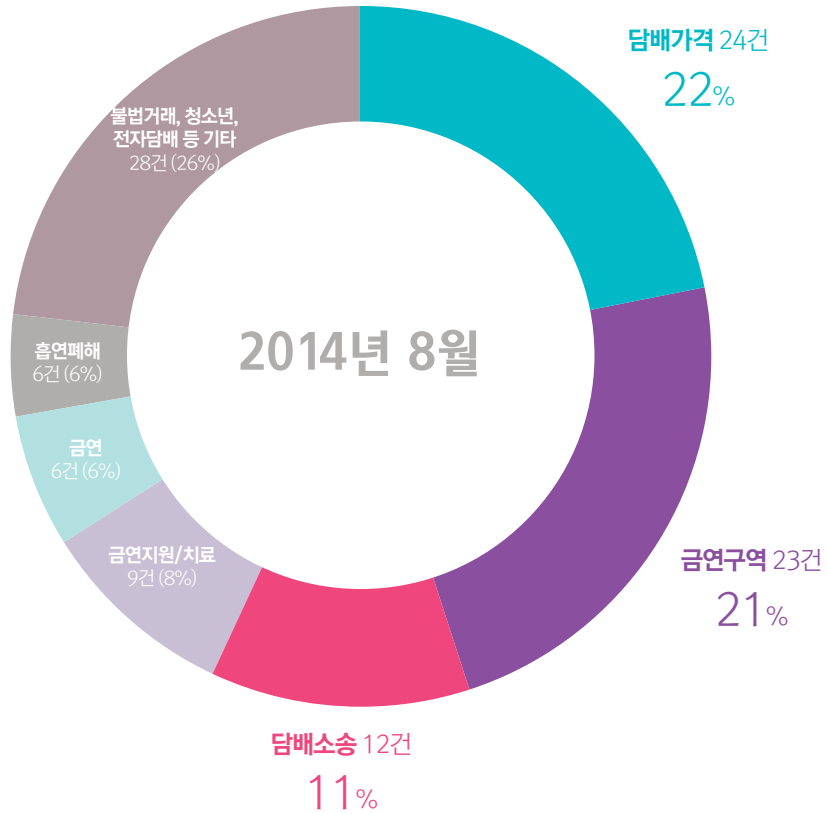
무연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비롯한 각종 신종담배에도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제품 특성별 경고의 내용과 표기 방법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최근의 행보는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다양한 담배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미리 보호하고자 하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포장규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경고그림의 도입과 건강경고의 크기를 WHO 권고 수준인 담뱃갑 주요면적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담뱃갑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담배제품 건강경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

Monthly Keyword

Monthly Keyword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금연이슈를 심층 분석하여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여론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또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달의 언론 이슈 키워드는 “담뱃값”, “금연구역”, “담배소송”

2014년 8월, 국내 주요 언론사의 총 108건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담배가격(24건, 22.2%)이 최대이슈로 나타났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택시에서의 흡연 금지가 실시되면서 금연구역(23건, 21.3%)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도되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확정되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청구한 소송에서 개인이 거대 담배업체인 R.J Reynolds를 상대로 사상 최고액의 배상액을 받아내는 등 “담배소송”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된 빈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금연구역’, ‘담배가격’, ‘담배소송’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는데, 택시 내 흡연금지 등 금연구역 정책이 강화되는 반면 여전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적극적 단속을 바라는 메시지가 다수 노출되어 정책 추진에 따른 적극적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인식하는 소셜미디어 상의 메시지가 다수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가격 인상의 국민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onthly Highlights

참고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Competition and Consumer(Tobacco Information Standard 2011 (as amended)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3C00598>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ction 204 of the Tobacco Control Act - Smokeless Tobacco Labels and Advertising Warnings
<http://www.fda.gov/syn/html/ucm2023662>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mokeless Tobacco Product Warning Labels Fact Sheet
<http://www.fda.gov/downloads/TobaccoProducts/Labeling/Labeling/SmokelessLabels/UCM221770.pdf>
- Health Canada. Health Labels for Cigars, Pipe Tobacco and Other Tobacco Products
<http://www.hc-sc.gc.ca/hc-ps/tobac-tabac/legislation/label-etiquette/other-autre-eng.php>
- Tobacco Labelling Resource Centre. Health Warnings in India
<http://www.tobaccolabels.ca/countries/india/>
- Singapore Attorney-General's Chambers. Tobacco(Control of Advertisements and Sale)(Labelling) Regulations 2012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CompId%3A72549219-2bb2-481e-b8b0-2ec6a7111af1;rec=0>
- Philippines signs into law graphic health warnings
http://www.wpro.who.int/philippines/mediacentre/releases/phl_signs_law_graphic_health_warnings/en/
- Graphic smoking warnings delayed despite new law in Philippines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asiapacific/graphic-smoking-warnings/1302160.html#>
- Cigarette makers ignore Indonesia label deadline
<http://bigstory.ap.org/article/big-tobacco-snubs-health-warning-law-indonesia>
- Sri Lanka to have graphic package warnings - finally!
<http://www.ftc.org/fca-news/opinion-pieces/1190-sri-lanka-to-have-graphic-warnings-finally>
- Smoking rates down, fewer young people drinking alcohol and mixed results on illicit use of drugs
<http://www.aihw.gov.au/media-release-detail/?id=60129548108>
- Standardised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draft regulations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standardised-packaging-of-tobacco-products-draft-regulations>
- Plain packaging will cost revenue, but bring health savings
<http://www.irishtimes.com/news/health/plain-packaging-will-cost-revenue-but-bring-health-savings-1.1890553>
- Parliament health committee passes plain packaging bill
<http://www.3news.co.nz/Parliament-health-committee-passes-plain-packaging-bill/tabid/423/articleID/355683/Default.aspx>
- France moves towards cigarette plain packaging
<http://www.worldpreview.com/news/france-moves-towards-cigarette-plain-packaging-6867>
- South Africa plans plain cigarette packaging by 2015
<http://www.tobaccolabels.ca/south-africa-plans-plain-cigarette-packaging-by-2015/>
- Six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 Tobacco Control. Control and prevention of smokeless tobacco products. Report by WHO (FCTC/COP/6/9)
http://apps.who.int/gb/fctc/PDF/cop6/FCTC_COP6_9-en.pdf
- 한국건강증진재단. 담뱃갑 포장의 진실. 건강증진총서, 2013년 제2호

9 [9월호 예고]
 9월호에는 최근 국내외 담배규제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담배소송”에 대하여 다룹니다. 담배회사의 거대자본 뒤에 숨겨진 담배의 불편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대표적인 승소사례를 조명하여 단순한 법정 공방 이상의 담배소송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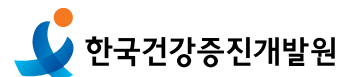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AUGUST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150-86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5층
Tel. 02-3781-3500 Fax. 02-3781-3583 www.khealth.or.kr

[구독신청]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 홈페이지 주소 : www.khealth.or.kr

※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관리팀
tcir@khealth.or.kr